

2.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660년 이후 20여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지금의 예성강~원산만 이남의 땅을 확보하였다. 즉, 백제 영토의 전부와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탈취함으로써, 그 영역을 종전의 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그 전쟁에서 수백 년 이래의 숙적인 두 나라를 영구히 쳐 없애고, 넓은 새 영토까지 얻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도 크나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었다.

물론 신라가 주도한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자구책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사실 신라는 660년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 특히 백제의 공격으로 국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두 적국을 없애고 영토도 넓혔으며, 무엇보다도 위기를 해소하여 국가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의 싸움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 힘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은 그뒤의 한국사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영향은 너무도 절묘한 것이었다.

아무튼 신라에 병합된 옛 백제 영토는 685년(신문왕 5)까지 신라식의 4주(사비·완산·발라·청)와 3소경(금관·남원·서원) 및 다수의 군·현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이 중국식으로 고쳤던 지명들을 포함해 각 고을의 이름도 상당수가 점차 신라화하였다. 그때 삼평은 여전히 군으로서 변동이 없었던 것 같다.

그후 신라는 757년(경덕왕 16)에 당의 방식을 따라 주·군·현 간의 영속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국에 걸쳐 모든 지명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고쳤다. 그에 따라 무주총관부의 관내에 들게 된 삼평은 ‘승평’으로 개칭되었으며, 군으로서 회양현·해읍현·노산현을 관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신라 경덕왕대의 순천지역 행정구획

주(총관부)	주·군	주·군·현	비고(현 지명)
무 주 (1주·14군·44현)	무 주	무 주	무진주(광주)
		현웅현 (외 2현)	미동부리(남평)
	승평군	승평군	삼평군(순천)
		해읍현	원촌(여수)
		노산현	돌산(여천군 화양면)
		회양현	마로(광양읍 마로산 고성)

그러나 757년의 ‘개혁’은 무열왕조가 쇠퇴해가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였던 중국화 정책이었고, 지방통치의 강화를 꾀한 마지막 안간힘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그 조치는 실효를 거둘 수도 없었지만, 그나마 20년 만인 776년(혜공왕 12)에 정식으로 취소되고 백관의 호가 모두 복구되었다. 각 주·군·현의 이름도 거의 복구되었다.

이처럼 757년의 개혁은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무열왕조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결국 수년간 내란이 잇달아 일어나던 중에, 혜공왕이 난군에게 살해됨으로써 무열왕조는 8대 127년(무열

왕~혜공왕, 654~780) 만에 단절되었다. 그리고 과도기인 선덕왕대를 거쳐 원성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무열왕조시대를 신라의 '중대', 선덕왕 이후를 '하대'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원성왕조(원성왕~경순왕, 785~935)도 한번 실추된 왕조의 지배권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신라 자체는 이미 쇠망기에 들어 해체되고 있었으며, 왕조 교체과정에서 격화된 지배층의 분열은 그것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사회는 지방분권시대인 '호족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사의 대분열기인 호족시대는 좀더 새롭고 바람직한 재통일·재통합·재분배의 사회를 요구하고 또 스스로 준비해가는 격동기였다. 각 지방의 호족들은 독자적인 지배권을 구축하여 마치 '열국시대'를 방불케 하였으며, 한편으로 '천하통일'을 위해 서로 싸웠다. 그 과정에서 각 세력간에 지배 복속의 관계가 생겨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양국이 40여 년 동안 쟁패하였으나 겨우 명맥만 유지해오던 신라왕조가 935년 고려에 투항하고, 다음해에는 후백제가 고려에 패망함으로써 마침내 통일이 성취되었다.

후백제와 고려의 쟁패기에 삼평(순천)지역은 백제의 세력권이었다. 한편 견훤을 섬겼으며 죽어서 순천의 성황신이 되었다는 김충, 견훤의 사위로서 견훤이 고려에 투항한 뒤에 고려에 내응하였으며 죽은 뒤에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박영규, 무용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죽은 뒤에 인제산신이 되었다는 박난봉 등은 당시 이곳의 대표적인 호족들이었다.